



세계기독교박해순위(World Watch List)에서 북한은 18년 연속으로 1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또한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광의 여정을 걷는 북한 성도들의 손을 잡아 주세요!

여러분들의 후원이 영광의 여정을 기꺼이 걷고 있는 북한 성도들에게 생명으로 다가 갈 것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호,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번호: 02-596-3171 팩스번호: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로다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이 다 즐거이 외칠지이다” (시편32:10-11)

아시아(Asia)

1일(화) 북한(North Korea)
쌀쌀해진 바람과 옷 사이를 파고드는 추위가 겨울을 실감나게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겨울은 항상 혹독합니다. 남한에 비해 훨씬 극심한 추위가 북한 땅에 엄습하지만 충분한 난방과 식량 확보는 골치거리입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에너지 사용이 급증함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 증가로 주민들의 건강은 더 큰 위협에 노출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일(수) 북한(North Korea)
북한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대외적인 화해와 대화 분위기와는 다르게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주민들의 사상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외부 정보 유입 차단과 내부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과 자유 억압이 중단되고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고 존중하는 인권 개선 등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외교적 대화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논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일(목) 부탄(Bhutan)
많은 불교 신자들이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치유, 환상, 그리고 꿈을 통해 부탄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부탄 사람들이 주님께 민감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일(금) 미얀마(Myanmar)
기독교인은 보통 권력이나 영향력 있는 자리와 거리가 멀게 됩니다. 기독교 소수자에 대적하는 군사 첩보 활동은 공개적이며, 지난 10년간 3,000개가 넘는 기독교 마을이 불에 뒀습니다. 교회는 등록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식되어 괴롭힘의 대상이 됩니다. 1966년 외국인 기독교 사역자가 추방되면서 신생 교회는 성숙한 지도자나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채로 남겨졌습니다. *고난과 박해, 고립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일(토) 파키스탄(Pakistan)
아버지는 살해당했다. 딸은 결혼을 강요당했다. 가족들은 무차별 폭행당했다. 아들은 눈을 맞아 실명했다. 파키스탄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겨냥한 폭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무슬림이고 피해자는 대부분 크리스천입니다. WWM은 파키스탄 곳곳에서 무슬림들의 크리스천을 겨냥한 폭력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알렸습니다. *파키스탄에서의 무슬림의 광기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제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6일(일) 중국(China)
남부 무슬림배경의 마을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배제 때문에 올바른 직업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종교규제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교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어서 중국 남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 피폐해 질 것입니다. *시진핑 체제 아래 거세지는 박해 속에서 주께서 중국 교회와 지하교회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남부 무슬림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7일(월)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은 자국민의 기독교 개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벗어난 사고 방식조차 모두 반역죄로 여겨집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북한과 같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슬림 무장 단체인 탈레반 치하에 있는 일부 지역은 테러와 폭력에 찢겨져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1만 5천명(0.05%)으로 추정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8일(화) 스리랑카(Sri Lanka)
불교승려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에게 행하는 폭력이 경찰들로부터 묵인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스리랑카에서 기독교 개종의 합법화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승려들이 교회 건물을 노리고 접근하거나, 예배 때 폭력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불교의 기독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성장하는 초대 교회적 사건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9일(수) 방글라데시(Bangladesh)
방글라데시 내 대부분의 무슬림배경의 신자들(MBBs)은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적 생존을 위해서는 강력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에 평신도 지도자 훈련(LLT)과정을 개설하여, 필요한 성경교육과 리더십 등을 훈련하게 됩니다. *평신도 지도자 훈련 과정을 통하여 무슬림배경신자들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평신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일(목) 몰디브(Maldives)
뉴욕타임즈의 보고에 의하면 몰디브 청소년의 50%가 헤로인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여학생 7명중 1명이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고, 18세 이하의 몰디브 아이 중 47% 정도가 집과 학교, 공동체에서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디브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몰디브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1일(금) 인도(India)
전 세계에서 자살하는 여성 10명 가운데 4명 가까운 사람이 인도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도여성이 이처럼 많은 이유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가부장적인 문화와 함께 조혼 제도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인도 여성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만 15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음하며 사라지는 인도 여성들의 비참한 삶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아프리카(Africa)

12일(토) 나이지리아(Nigeria)
지난해 풀라니 무슬림 목동들(Fulani Herders)의 폭력으로 남부 카두나(Kaduna)지역, 538개 마을에서 808명이 숨졌고, 교회 지도자들 5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55억 달러 정도의 농산물 손실이 있었고, 1,422채의 주택과 16개의 교회가 불타 버렸습니다. *남부 카두나 지역의 기독교인들과 무고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3일(일) 나이지리아(Nigeria)
샤리아(Sharia, 이슬람법)에 의해 통치 되는 북부 나이지리아 지역의 기독교 학생들은 지방 정부와 공공 기관으로부터 교육, 의료, 복지와 같은 기본 사회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교육의 권리에서 배제됨으로 인한 어려움이 큼니다. 이에 오픈도어는 2005년부터 4개 주에서 상황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부자들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과 배제로부터 자유로운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14일(월) 콩고공화국(DRC)

북동부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공격 아래 놓여 있습니다. 현재 수년째 이슬람 세력이 기도교인 씨를 말려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격과 강간, 유괴, 살인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미움이 한계에 이르렀고, 이것은 주를 적대하는 악한 마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박해 중에 주의 보호와 도움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15일(화) 수단(Sudan)

지난해 수단 정부가 기독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이후, 계속해서 목회자들에 대한 구속이 늘어나고 25개 교회가 철거 대상 목록에 올랐습니다. 특히 아랍계 혈통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미움이 심한 상황입니다 *수감되어있는 수단 목회자들이 풀려 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전쟁, 박해, 대량학살에의 위협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6일(수) 서 중부 아프리카(West and Central Africa)

폴라니족은 99%가 무슬림인 유목 민족으로, 주로 나이지리아, 말리, 기니, 카메룬, 니제르에 거주합니다. 이들은 가장 열렬한 극단적 이슬람교도이기도 합니다. 12세에 소녀는 결혼을 하며, 일부다처제의 문화 속에서 고통 당합니다. 이 종족 내 소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통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이 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아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종족 가운데 비추이기를 기도해 주세요.”

17일(목) 소말리아(Somalia)

수년간의 전쟁과 무관심으로 이 나라의 경제적 · 사회적 · 신체적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 입니다. 75만명이 넘는 사람이 국내에서 추방되었고, 전쟁으로 50만명이 죽었습니다. 전쟁과 쿠데타, 특히 과격 이슬람 때문에 해외에서 원조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밀수업자, 노상강도, 해적, 테러범들을 양산했고, 취약 계층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가속화 시켰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질서와 안정을 추구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과격 이슬람 세력이 무력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동(Middle East)

18일(금) 리비아(Libya)

리비아에는 나이지리아, 니제르, 가나 등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주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며 오래 동안 살아 왔습니다. 이들은 흑인 아프리카 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리비아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들 예배 공동체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주님의 경제적 공급하심이 이들 가운데 풍성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19일(토) 레바논(Lebanon)

레바논 역사는 지난 70년간 내전, 외국의 간섭, 인질 납치 등 비극적인 사건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안정되어야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선교사가 감소하고 국내 지도자가 해외로 이주하면서 많은 교회가 목회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정치적 안정과 기독교 주를 닮은 교회 지도자들이 배출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0일(일) 이집트(Egypt)

이집트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로, 기름, 가스, 전기, 수도의 가격이 상승했고, 교회 내의 경제적 가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무슬림의 공격이 증가해 공포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급자인 하나님께서 경제적 가뭄의 시기에 그의 백성들을 먹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성령이 주시는 평화와 용기와 위로가 교회 공동체 내에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21일(월) 이라크(Iraq)

1980부터 전쟁과 소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전쟁과 폭음, 죽음의 한 가운데서 태어났으며 살아 왔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희망과 밝은 미래를 포기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이라크 백성에게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께서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22일(화) 모리타니아(Mauritania)

사하라사막 이남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리카계 어린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모리타니아 시민권이 주워지지 않아 ‘나라없는’ 사람들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리타니아에서 태어난 비-무슬림 자녀들은 출생증명서조차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리타니아에서 태어나거나 생활하고 있는 아프리카계 어린이들에게 하루속히 시민권이 부여되어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받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3일(수) 레바논(Lebanon)

작은 나라 레바논에는 시리아, 이라크 그 외 많은 나라들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빈곤과 배고픔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많은 난민들에게 공훈과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레바논의 경제회복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4일(목) 시리아(Syria)

분열되고 피폐해진 시리아를 보는 것은 비극 자체입니다. 시리아에는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있었으며, 2011년까지만 해도 대외채무가 없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에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였으며, 시리아인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이 호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를 건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25일(금) 이스라엘&팔레스타인(Israel & Palestine)

가자(Gaza) 지구는 현재히 일자리가 부족하고,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곳을 떠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속출하고, 교회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온 듯 합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라져 가는 어려움 중에 교회 지도자가 지혜와 참된 리더십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6일(토) 예멘(Yemen)

극심한 내전 중에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Saudi Aravbia)로 부터의 포탄 공격이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80%이상의 예멘 국민들이 원조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삶이 폭력과 전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 불쌍한 국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중앙아시아(Central Asia)

27일(일) 타지키스탄(Tajikistan)

국민 대부분이(98% 무슬림) 가난에 허덕이고 마약거래상은 번영을 누립니다. 해외 원조에 의존도가 높고 실업률이 높아 850만명의 인구 중 100만명 이상의 남성이 해외(대부분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 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인구 감소와 교회 지도자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찬송가를 부른 한 목회자는 종교혐오유발 죄목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이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8일(월)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동방정교회를 제외한 기독교 교단의 활동, 심지어 기독교 존재 자체에 대한 적대감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증가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외국 기독교인은 추방당했고, 몇몇 토착민 목회자는 망명해야 했고 매맞는 수모를 겪었으며 심한 벌금을 물거나 투옥되었습니다. 교회는 위협당하고 모임은 금지되었으며, 교회는 등록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용기 있게 굳건히 서며, 이 나라에 있지 않은 기독교인이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9일(화) 멕시코(Mexico)

멕시코의 여러 도시들은 조직적인 범죄에 노출돼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마약범죄 조직과 기타 여러 가지 범죄들로부터 위협당한 기독교인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예방하는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 상황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픈도어의 앞으로의 사역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며,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신뢰할만한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지혜로써 멕시코 내의 조직적인 범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우고, 이 일에 앞장서는 치토(Chito)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0(수) 에티오피아(Ethiopia)

수백만 명이 만성 영양 결핍에 시달리지만 외국의 식량 원조에 더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족별 · 지역별 농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사역을 자를 후원하고, 구조물과 시설물을 확충하여 사회에 만연한 깊은 빈곤을 해결하는 사회경제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교회는 장기적 전략을 갖추지 못하고 박해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으며, 선교에 비전을 가진 교회는 3%뿐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이 땅의 주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1일(목)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리고 도우심 속에서 사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이사장 및 공동대표: 김성태 교수, 공동대표: 신현필 목사, 사무총장: 이종만 목사, 이사분들, 사역자들). *한국오픈도어가 전세계 핍박 받는 교회들을 위한 애타는 심정과 진심으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후원자 분들과 기도용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